

진흥회 활동

'97 한국전자전, 성황리에 폐막



“첨단기술로 보다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통상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하여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지난 10월 25일 막이 오른 '97 한국전자전(KES '97)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17개국의 420개 우수 기업들이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국내외 16만5,000명(외국 바이어 3,526명 포함)의 참관객과 14억 50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 등 풍성한 수확을 올리고 10월 29일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올해 28년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내의 기업환경악화 등 우리 전자정보업계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현실이었던 바, 우리의 우수기술력, 세련된 디자인 특히 적정수준의 가격제

품으로 방한한 바이어들에게 구매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업계 관계자, 전자 관련 연구소, 공과대학 교수 및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몰려 첨단제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전자산업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해주는 자리매김이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값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 전자전에는 3,526명의 해외 유력바이어가 내한하여 거래상담활동을 벌였는데 국가별로 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1,378명, 구주지역에서 1,037명, 미국 등 북미지역이 758명, 중남미지역 156명, 중동 98명, 대양주 63명,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3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로는 68개국으로 우리 전자산업의 시장개척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전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IC 및 LCD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총아로 불리는 DVD, PDA, 대형프로젝션 TV 및 PDP TV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하고 콤비세척기를 비롯한 친환경 생활 전자제품들이 대거등장과 함께 Duplexer, Stepping 모터와 함께 SMD형의 고정밀·고신뢰 전자부품도 많이 출현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한국의 전자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한국전자전에는 우수 신개발 전자부품관을 마련하여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전자부품 가운데 Zoom Lens 등 47종의 우수개발품을 뽑아 이를 특별전시함으로써 우수 국산 부품의 구매를 촉진토록 하였다.

올해 전자전은 국내 최고의 전통을 지닌 최대규모의 산업전시회로 수출중대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전시회로 21세기 첨단 전자·정보산업국임을 실감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4회 전자산업에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포럼



본회 국제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17일까지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본회 회원사 및 전자·정보산업체, 주한 외국공관, 해외투자, 유관기관, 주한 외국인 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모인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회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 전자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방향제시와 세계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매년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는 바, 올해는 특히 21세기 한국전자산업의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주요기업의 해외투자사례 및 현지화평가, 외국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 소개 등의 내용으로 현지 해외 진출중이거나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주제 발표로는

〈Session I : 주제 발표〉

- 21세기 한국전자산업 세계화 비전과 전략
- 중앙대 전용욱 교수

〈Session II : 세계화시대 한국전자산업의 대응〉

- 외국인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부의 지원 방안

- 통산부 외국인투자 종합지원 실장 양선엽 서기관

- 한국전자산업 해외투자 현지화 평가와 과제

- 대우경제(연) 이택규 연구위원

-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국제부장

〈Session III : 주요 기업의 해외사업 경영 노하우 소개〉

- 멕시코 : 삼성전자 최진배 상무

- 베트남 : 오리온전기 하철 부사장

- 중 국 : 현대전자산업 이재익 이사

〈Session IV : 투자 유망 지역 소개〉

- 스페인 (30분)

- 영 국 (")

- 프랑스 (")

- 말레이시아(")

- 미 국 (")

전자산업 2005년까지 전망 발표

- 년평균 8.0%씩 성장. 2005년 생산 1,310억불, 제조업 전체의 20% 차지 —

- 산업구조도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기술집약산업이 70% —

본회가 전문가 1,200명을 동원해 지난 2년간 작성한 2005년까지의 전자정보산업 중장기발전 전망이 10월 28일 발표되었다.

그동안 1,200명의 연구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05년까지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 과제로는 AV기기에서 디지털(HD)TV, DVDR, VOD 시스템, 디지털 캠코더, 컴퓨터 분야에서는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대형LCD모니터, 통합 IC카드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통신기기에서는 초고속 ATM교환기, 미래육상 이동통신시스템, 디지털 지상파 방송시스템, 초고속광무선 LAN, 전자 응용장치에서는 휴대형 초음파진단장치, 원격진단 및 처방시스템, 자동차종합진단계측기, 전자내시경 반도체에서는 4기가

MOS Memory, PDP, 고기능전력 IC, 32bit이상 DSP, 전자부품에서는 리튬이온전지, 레이저다이오드, GHz대 안테나, SMD TCXO 등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3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난 기술개발 및 상품화시기 예측결과를 보면 A/V기기에서는 디지털 TV, 디지털 캠코더 등이, 컴퓨터에서는 Hand Held PC, 써버급 워크스테이션 등 통신기기에서는 초고속 ATM 교환기, 저궤도 육상이동통신시스템 등이 전자응용장치에서는 휴대형 초음파 진단시스템, 혈액자동분석기 등이 반도체에서는 PDP, 후레쉬 메모리, 전자부품에서는 SMD TCXO, 광코넥터 등이 2000년 이내에 개발되고 2005년까지는 3차원 입체TV, 컴파일러, 미래육상이동통신시스템, 자동수출로봇, 광IC, 초전도 코넥터 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진흥회는 이번 수요예측에서 세계적으로 2000년까지 CATV, 병렬프로세서컴퓨터, Hand Held Phon, 무선 LAN, 고도계측시스템, MPEG #2 Chip, 액정판넬 등이, 2005년까지는 HDTV, 디지털 VTR, PDA, VOD, 가정용 TV전화, 대용량기록 매체 등이 성숙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세계전자시장은 '96년 9,096억불에서 2000년에는 1조 1,400억불로 년평균 5.2%씩의 성장을 하고 그후 2005년까지는 4.4%씩의 성장으로 시장규모는 1조 4,0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산업 수출도 2000년까지는 년평균 9.8%씩 증가하고 그후 2005년까지 8.4%씩의 증가에 그쳐 수출액은 현재('96년) 381억불에서 2000년에는 650억불, 2005년에는 975억불로 내다 보았다.

수출 및 내수시장의 지속적 성장으로 생산은 현재 571억불에서 2000년까지는 년평균 8.5%씩 성장해 890억불, 그후 2005년까지는 8.0%씩 성장해 1,310억불의 생산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문별로는 AV기기 등이 1%내외의 낮은 성장을 하는 대신 반도체, 컴퓨터 등은 년평균 9% 내외의 높은 성장을 함으로써 그동안 가전산업 중심의 우리 전자산업 구조가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기술집약산업(전체의 70%)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로서 우리 전자정보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제조업 GNP대비)도 현재 16%에서 2000년에는 18%, 2005년에는 20%로 제고되고 세계 전자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에서 2005년에는 9%로 제고되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전자정보산업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세한 내용 ⇒ 이달의 초점)

아시아지역 전자전시회 주체자협의회 공식 출범



아시아지역 주요 전자전시회의 주체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10월 5일~9일까지 일대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지역 전자전시회 협력회의」에 참석해 일본·대만·홍콩의 전자전 주관기관인 JESA, TEEMA/CETRA, HKTDC 등과 아시아전자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 협의체 발족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전자전시회 주최기관 대표들은 협력체제 구축원칙에 합의하고 전시일정 상호연계, 전시정보 교환, 주요매체 공동홍보 및 인터넷 연결, 홍보부스 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이에따라 아시아지역에서 열릴 전자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며 해마다 각국을 순회, 개최될 이 협의체회의를 통해 한국전자전의 대외 홍보와 바이어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97년도 한·일 형명등록센터간 정기 교류회 개최

본회 형명등록과에서는 한·일 센터간 정기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속한 정보교류 촉진과 WTDS가입국의 움직임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양국 형명등록위원회 위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6회 교류회는 지난 10월27~30일까지 한국 제주도에서 일본측 소장,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부안건으로는 '97년도 양국 센터의 형명등록 및 홍보현황 설명과 '96년도 정기교류시 논의사항 점검을 하였다.

- 일본측 CRT형명체계상 한국 ECRC/EIAK의 명칭 삽입
- 홍보데이터의 전자배포에 대한 양국 대응전략
- 홍보데이터의 오투처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 마그네트론, 반도체의 등록현황 파악 등

또한 양국 센터간 협력사업 발굴 및 '98년도 예상 주요사업 협의와 차기교류회 일정, 장소, 의제 협의, 기타, 형명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류회로 WTDS와 관련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며 국가적인 형명등록 품목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마그네트론 반도체)이 기대된다.

특소세 관련회의 개최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10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정부의 소비세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가전제품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를 위한 업계 대응방안 협의회를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소비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가전제품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를 전제로 한 세수확보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바 각 업계의 입장을 수렴·검토 하였다.

이날 회의결과 각사는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 및 폐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원 등에 정보제공을 하기위해 가전제품의 비과세 범위설정을 위해 품목별 업체별 현황을 파악하기로 하였다.(11월초까지 각사 의견 수렴)

또한 정보가전제품 등 신제품이 특소세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것을 저지하고 소비세제 관련 인사의 의견 수렴 및 여론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97 서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 관련 우수 기술개발 업체 표창



본회는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개최된 '97년 서울 국제 계측제어기기전 부대행사로 계측기기 우수개발업체를 선정 10월 29일, 통상산업부 통상부장관표창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주)카스(김동진), (주)메텍스(김의명),
- (주)서현전자(이영남), (주)혜창전기(정해복),
- 광성계측기(임병천), 삼일산업(주)(홍순목),
- (주)오토닉스(박환기), 화성계기(주)(송찬영)

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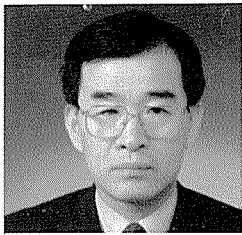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주) 오리엔탈 전자공업	1971.11. 1
한애전자(주)	1971.11. 1
뉴텍컴퓨터산업(주)	1987.11. 1
(주) 씨라텍	1989.11. 1
상지전자(주)	1991.11. 1
(주) 자원메디칼	1993.11. 1
롯데전자(주)	1973.11. 2
(주) 효성 T & C	1966.11. 3
한국쌍신전기(주)	1973.11. 4
(주) 유양정보통신	1976.11. 4
IDM 무선정보통신(주)	1996.11. 4
아비코(주)	1973.11. 5
한국영상(주)	1981.11. 5
(주) 대양기전	1985.11. 5
한국도로전산(주)	1983.11. 8
(주) 하이트론시스템즈	1986.11.10

회 사 명	창립연월일
평창무역(주)	1981.11.11
서진전자공업(주)	1972.11.14
이행전자개발(주)	1974.11.14
동현전자	1987.11.16
(주)창성	1980.11.18
삼우전자(주)	1985.11.18
살롬엔지니어링(주)	1986.11.18
(주)에이직프라자	1995.11.20
오리온전기(주)	1965.11.22
(주)케이엔씨	1985.11.22
한국일신(유)	1986.11.22
(주)이엠에스정보통신	1981.11.24
(주)신원인더스트리	1981.11.24
(주)LG상사	1958.11.26
(주)에스케이엠	1976.11.27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 디지털론



대표이사 : 현광철
 주소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24-4
 TEL : (0334)74-8013
 설립일자 : 1991.7
 자본금 : 5억원
 종업원수 : 20명
 주생산품목 : 컴퓨터부품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 사옥이전 —

▶ (주)연우이엔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08-3 석경빌딩 3층
 — TEL : (02)3443-7880

진흥회 10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10.5~9	아시아 전시주최자 회의관련 출장	(일본 동경)	국 제 부
10. 7	VCR용 파워코드 표준화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한국KDK, 동원정공, 국제전열	부 품 과
10. 8	전해콘덴서 표준화 회의	대우전자부품, 삼성전자, 삼화전기, 삼성전기	부 품 과
10.8~14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 개발사업 실사	인터링시스템 등 16개 업체	정보산업부
10. 9	마그네트론 기술 표준화 회의	LG전자 등	형명등록과
10.10	MLCC 표준화 회의	삼성전기, LG전자부품, 삼화콘덴서	부 품 과
10.13~23	완료과제 실사	LG산전 등 15개사	개발지원과
10.14	한·일 통상협력회의	LG,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등 4사 (CIAJ(EU FAX 대응), EIAJ(WCO 원산지 규정))	국 제 부
10.14	세탁기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과
10.15~17	전자산업 세계화 경영전략 국제포럼	LG전자 등	국 제 부
10.21	수출·입 동향 점검반 대책회의		국 제 부
10.21	업종별 민간 협의회(가전산업)	통신부 장관, 업계대표, 학계 등 30명 (무역협회 49층, 대회의실)	가 전 과
10.21	우수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 시상	LG전자 등 18명	부 품 과
10.22	디지털 이동 전화기(PCS) 제조업체 회의	삼성전자 등 7개사	산업전자과
10.23	특소세 관련 회의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가 전 과
10.23	JEIDA 모니터 분과위원회 방문 및 협조	방문자 Yoshihik Nakano외 10명 (모니터, LCD 공장)	정보산업부
10.25~29	제28회 '97 한국전자전람회 개최	(KOEX)	국 제 부
10.25~29	신개발 부품 전시회	(KOEX)	부 품 과
10.27	한·일 형명등록센터 정기 교류회		형명등록과
10.30	리사이클링사업 추진 관련 회의	가전 3사 물류담당 부서장(본회 회의실)	환 경 과
10.31	캠코더용 모터 표준화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전자부품	부 품 과